

10월 아셈회의 기간중 '세계불교문화 엑스포' 연다

봉은사·정부 실무팀 구성 합의...불교테마파크도 9월 완공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셈(ASEM) 정상회의 기간중 불교문화와 가치관을 세계에 알리는 '세계불교문화엑스포'가 개최될 전망이다. 또 이와 때맞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관련 문화를 한데 모으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불교테마파크'도 건립된다.

특히 이 두 가지 불사는 올해 아셈회의에 이어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불교문화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1월 31일 교계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불교문화엑스포 개최 성사를 위해 정부관계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실무를 맡고 있는 박금직 기획과장은 "1월 중순 원혜스님이 박지연 문화재단과 만나 불교문화엑스포에 대한 지원협조사를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지난 1월 말 정부의 아셈기획단 및 강령구정 아셈추진팀과 이번 엑스포 진행을 위한 실무운영팀 구성에 합의한 상태다.

봉은사가 밝힌 이번 엑스포는 '동양으로 가자(COME ORIENTAL)'를 주제로 아셈회의가 개막되는 10월 20일 일주일 전부터 폐막 일주일 후까지 15~20일간 봉은사 경내, 한강 고수부지, 올림픽공원 등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으로는 공식행사를 비롯해 불교문화관련 전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등의 특별행사, 불교문화예술공연, 불교영화제 등의 이벤트, 학술행사, 상징탑 건립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40여종의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불교문화의 의미와 한국불교문화 및 각종 불교문화 등을 소개하는 전시와 법패·바라·불교미술·오페라·어린이 인형극·영화 등 불교관련 예술을 망라한 공연, 영산대제·탑돌이·아담법석·음식문화제 등의 이벤트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제불교상사회의대의 '불교잔치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불교테마파크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문화센터 대신 교육·문화 등을 포함한 불교종합문화공간을 건립키로 대우측과 최종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예식장 설치 문제 등과 관련한 부분적인 합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공사비 270억원에 대우측에서 전액 부담하며, 10년간 봉은사와 대우가 공동운영하고 이후 봉은사가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봉은사는 불교테마파크 역시 불교문화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아셈회의 기간중 불교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할다는 방침인데 현재 지하 공사를 거의 끝낸 상태며,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봉은사 맞은편에 마련된 아셈회의장과 테마

파크를 잇는 지하로도 추진중에 있다.

봉은사 옆 사하촌 일대에 세워질 불교테마파크는 연건평 5천3백여 평에 지하4층 지상3층 규모로 약초사우나·치료센터 등 건강타운과 불교예식장을 포함한 각종 공연장, 불교박물관,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춘 선방, 위패를 봉안하는 극락전, 전통놀이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따라서 불교테마파크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은사는 오는 2007년 봉은사 개산 1212년을 기념한 '1212 기념사업회'를 오는 3월 발족키로 하고 불교테마파크 및 보우당(식당·강당) 건립 등 12대 불사와 불교문화엑스포 및 봉은문화예술단 창립 사무나·치료센터 등 건강타운과 불교예식장을 포함한 각종 공연장, 불교박물관,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춘 선방, 위패를 봉안하는 극락전, 전통놀이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따라서 불교테마파크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은사는 오는 2007년 봉은사 개산 1212년을 기념한 '1212 기념사업회'를 오는 3월 발족키로 하고 불교테마파크 및 보우당(식당·강당) 건립 등 12대 불사와 불교문화엑스포 및 봉은문화예술단 창립 사무나·치료센터 등 건강타운과 불교예식장을 포함한 각종 공연장, 불교박물관,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춘 선방, 위패를 봉안하는 극락전, 전통놀이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따라서 불교테마파크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남사업회'를 오는 3월 발족키로 하고 불교테마파크 및 보우당(식당·강당) 건립 등 12대 불사와 불교문화엑스포 및 봉은문화예술단 창립 사무나·치료센터 등 건강타운과 불교예식장을 포함한 각종 공연장, 불교박물관,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춘 선방, 위패를 봉안하는 극락전, 전통놀이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따라서 불교테마파크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은사는 오는 2007년 봉은사 개산 1212년을 기념한 '1212 기념사업회'를 오는 3월 발족키로 하고 불교테마파크 및 보우당(식당·강당) 건립 등 12대 불사와 불교문화엑스포 및 봉은문화예술단 창립 사무나·치료센터 등 건강타운과 불교예식장을 포함한 각종 공연장, 불교박물관,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춘 선방, 위패를 봉안하는 극락전, 전통놀이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따라서 불교테마파크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은사는 오는 2007년 봉은사 개산 1212년을 기념한 '1212 기념사업회'를 오는 3월 발족키로 하고 불교테마파크 및 보우당(식당·강당) 건립 등 12대 불사와 불교문화엑스포 및 봉은문화예술단 창립 사무나·치료센터 등 건강타운과 불교예식장을 포함한 각종 공연장, 불교박물관,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춘 선방, 위패를 봉안하는 극락전, 전통놀이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따라서 불교테마파크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상담개발원 3월말 개원

조계종 포교원, 상담대학 설립목표

불교전문화와 포교활성화를 위한 불교상담개발원이 3월 31일 개원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12일 실무자 회의를 갖고 스님과 재가불자 20명으로 구성된 이사선임과 사업계획, 예산안확정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담이론과 방법, 사찰이나 단체로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지하 공사를 거의 끝낸 상태며,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봉은사 맞은편에 마련된 아셈회의장과 테마

생을 위한 집중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교상담에 관심있는 전문직집단도 영입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연수교육도 실시하는등 불교적 상담이론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체 지원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각 사찰, 파라미타, 포교사단, 각 복지관등의 지원교육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교원은 상담개발원의 안정적 재정구축을 위해 이미 불교상담개발원 운영예산 2,800만원 확보한 상태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77개 선원서 남자 1631명 동안거

추운겨울에도 피어나는 인동 초처럼 전국선방에 수행의 꽃이 활짝피고 있다.

조계종교육원(원장 일면)이 3일 발표한 전국선원 정진대중 현황에 따르면 5곳의 총림을 포함한 77개선방에 1,631명의 수행남자들이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수가 정진중이거나 개별적으로 안거에 참여하고 있는 미집계사찰까지 합하면 1백개 선원에 2천명이 정진중인 것으로 교육원은 추산하고 있다.

이중에서 비구는 45개 선방에 776명이며, 비구니는 27개 선방에 712명이 동안거 결계중이다. 특히 해외사찰인 하와이 대원사 태평선원에 8명의 눈썹남자가 정진중이다.

교육원 박희승과장은 "종지종중 선양과 수행가풍진작을 위해 19일 해제하는 동안거 성만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종단차원에서 안거기회를 체계화하여 관리키로 했다"며 "안거자료는 종장기적으로 추진될 법제제도 및 승려복지제도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법륜종 제3세 종정 정각스님 추대법회

한국불교 법륜종 제3세 종정 영산 정각 대종사 추대법회가 1월 29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종사이론 삼귀의에 반야심경봉독, 추대사(법륜종 총무원장 법선스님), 정각스님 행장소개(부원장 호명스님)에 이어 법장 봉정과 봉축사(법륜종 총무원장 혜봉스님)가 있었다. 법회에서 종정 정각스님은 "정법안장 열반 묘심 종풍선양 위법망구(正法眼藏 涅槃妙心 宗風宣揚 爲法亡軀)이며 바른논으로 세상을 보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도암(대승종 종정)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흥과(관음종 총무원장) 스님과 김근태(새천년 민주당 지도위원) 합종한(한나라당불자회장) 김홍일(국회의원) 씨등이 각각 축사를 했다. 추대법회에는 인왕(여래종 종정) 혜초(태고종 전 총무원장) 무진(원효종 총무원장) 원택(조계종 총무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스님 등 각 종단지도자와 정계, 보현정사 신도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포교사고시 합격자 1차연수

조계종포교원(원장 정연)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5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321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연수를 실시했다.

포교원장 정연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사는 불자로서 더없는 영광임을 알아야 한다"며 "여러사 다른 사명감과 실천력으로 포교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회는 '조계종사의 이해' '포교사의 원력과 삶' '활동분야별 포교특성의 이해'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2차연수는 26일부터 27일까지 김천 직지사서 '수행과 포교' '종단구조와 운영체계' '포교활동 길잡이' '지역포교사단 활동방안과 팀 편성'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조사국장에 밀인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일 호법부 조사국장에 밀인스님, 상임감찰에 혜봉, 경우, 태진스님을 임명했다.

조사국장 밀인은 자공스님을 은사로 출가, 73년 경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8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정성은 기자

조계종 교무국장 연수회

조계종교육원은 15일부터 16일까지 직지사서 교구본사 교무국장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99년 교구본사 대상의 연수회를 평가하고 올해의 연수회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통일적인 교구연자교육을 위해 습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학인 수행기록부 추진

교과과정 표준화작업도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월 26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기본교육기관 학장회의를 개최하고 승가대학 수행기록부 실시와 교과과정 표준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성된 교재개발팀 편찬소위원회(위원장 지오)는 지난해 승가대학 종합평가를 통해 분석된 현행교과과정을 토대로 전국 강원도의 통일적인 교과과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수행기록부 실시 및 통일교과과정 마련은 종합적 교육평가를 통한 양질의 승려양성과 승가대학 운영의 체계통일, 그리고 면학동토 조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및 강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4급 승가대 시험을 시행하여 강원졸업교사로 대체하고 합격자에 한해 구축계 수계 자격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2학기부터 학적기록과 성적, 예불, 간경등 행해 및 위외의 평가표인 수행기록부를 작성하여 학인들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서울불교문화대학 설립"

관음종 주지총회 결정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1월 27·28일 양일간 창녕 법성사에서 전국주지총회와 제37차 중앙총회를 개최했다. 150여 사암 주지가 동참한 주지총회에서는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서울 흥분산 묘각사에 스님들의 자질향상과 재가불자들의 포교활동에 일익을 담당할 2년제 교양대학 '서울불교문화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3월 10일 입학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28일 열린 중앙총회에서는 8대 종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월 18일 종회의원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42명의원에 대한 제9대 종회의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더 깨끗한 선거를 위해

金河堂 光德 大禪師 1주기 追慕法會 및 『광덕 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奉呈式 奉行案内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연표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부산 법어사 입산 | 1951년 부산 법어사 정통당 정진

1955년 부산 법어사 동산 선방을 관사로 역도

1956년 비구계 수계 대외적 창립 초대회장 | 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 | 1961년~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1963년 대한불교교단연합회 초대 지도부 | 1965년~1967년 봉은사 주지 | 1965년~1974년 학교법인 대종학원 이사

1966년~1979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재단법인 대외회 감사

1970년~1973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1971년 원광 스님 열반사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1973년 재단법인 대외회 이사 | 1974년~1976년 재단법인 대외회 이사장 | 1974년~1999년 순수불교 운동지킴이 '불광', 발행인

1975년~1999년 불광법회 창립 원로 | 1977년~1995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1976년~1978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부의장 |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1990년~1996년 선학 대법원 법원사 금강계단 보살계단 전개(해상) | 1992년~1999년 재단법인 대외회 이사장, 도서출판 원광수 개설 발행인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현학원 이사 |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큰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벌써 1주기가 되어옵니다. 그래서 빛이었고 법등(法燈)이었으며 증단과 세간의 밝은 등불로 한국불교 현대화와 대중화의 거성이셨던 큰스님의 덕화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반야광명이고, 인간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임을 간곡히 역설하신 큰스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문명의 세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혼돈과 불안으로 진즉 왜소해진 인류에게 큰스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실했습니다. 못 대중에게 스스로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법'으로 보리이루라'는 큰스님의 부속을 계승하여 더욱 일로매진해야 할 대라고 봅니다.

아울러 큰스님 1주기를 즈음하여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불광의 이념, 불광운동의 업적, 포교에 관한 자료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한 권의 책자로 묶었습니다. 이 책자가 한국불교 미래의 진로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큰스님의 열반에 즈음하여 원근 각처에서 보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큰스님 열반하신 지 1주기가 되는 오는 2월 16일 사부대중을 모시고 추모법회 및 『광덕 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봉정식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불광법회 · 불광사 법주 지정 합장
주지 지암

- 일 시 : 2000년 2월 16일 (음 1월 12일) 오전 10시
- 장 소 : 불광사 보광당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 - 1)
- 연락처 : 02 - 413 - 6060 ~ 2

불광법회 · 불광사